

 금융위원회	<h1>보도 설명 자료</h1>			 대한민국 대정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 수 영(02-2100-2650)		담 당 자	장원석 사무관(02-2100-2654)

제 목 :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는
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.
 (머니투데이 3.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 내용

- 머니투데이는 3.21일 「뮤직카우 ‘무허가 시장 개설’ 논란」 제하 기사에서,
 - “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을 두고 파생결합증권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무 법적검토가 진행 중이며,
 -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불법관리청 콜센터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